

삶·수행 하나 되어 정견 서야

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간접하게 가르쳐 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교(敎)이다. 그 가르침의 근본 뜻을 선(禪)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근본 뜻인 선에 들어가자면 직접 체험을 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교를 객체화시켜서 지식화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을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 不立文字)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정견이 확실하게 서야한다는 말이다. 영상으로 비쳐진 대상화된 사물이라면 중도연기(中道緣起)와는 거리가 멀다.

정견(正見)이란 중도연기에서 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정견이 바로 서야 연기법(緣起法)과 무아(無我)사상 그리고 공(空)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견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참선을 시작해보니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느라 공부가 순일하지 못했다. 화두가 무엇인지 깊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자리를 화두(話頭)라고 한다. 그런데 그 화두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잘못 생각해서 소소 영령한 주인공이 각자 따로 있는 걸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하겠다는 구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깨달아야 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꼭 쉬지를 못하고 빨리 깨닫겠다는 속효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참선이란 쉬고 쉬어서 의정이 독로하게 되면 비우고 또 비워 철저한 무(無)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순간 우주전체가 내가 되고 내가 곧 우주 전체가 된다. 즉 체로금풍(體露金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여러 해를 방황하다가 성철스님 문하에 살 때 서서히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다.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는 곧 바로 참구해 들어가야 생각으로 따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화두참선이란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게 되었다.

영원한 행복 잡다운 평화는 부처님을 재워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떨어내고 떨어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야 영원한 평화 잡다운 행복이 온다. 간화선은 구하는 세계가 아니고 떨어내는 길이다. 돈오의 길이다. 돈오란 더 이상 떨어낼게 없는 상태다. 그런데 떨어낸다고 해서 떨어낼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이다. 처음 참선한다고 했으면 주로 번뇌 망상과 싸우게 마련이다. 참선하는 이가 처음 화두 탈 때로 돌아가 보자. 제자가 스승에게 물기를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하고 물으니 "뜰 앞의 잔나무(庭前柏樹子)니라"라고 답했다. 우주의 대 진리를 묻는데 어쩌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을까?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참선하는 내가 있고 깨달아야 할 뜻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

할 참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 원인은 화두가 반야공성을 바로 일러준 일구라는 걸 모르고 화두를 통해서 소소영령한 주인공을 깨달아야 하는 실체가 있는 걸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제법무야도 아니요. 중도 연기법도 아니다.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화두이기 에 다만 모를 뿐이라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다만 모르는 놈을 참구하고 참구하되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배고픈 이가 밥 생각하듯 간접 간접하게 참구해야한다. 참선할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닷물이 마음이라면 파도는 망상 번뇌다. 파도가 바닷물이다. 바람만 잡재우면 파도를 없애려고 싸우지 말라 파도란 없는 것



이다. 바람이 불어올 때 일어나는 바닷물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바람을 잡재우라 그릇을 비우라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면 그릇은 그대로 허공이 가득하다. 그 허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허공이었다. 고로 본래 부처다. 허공을 만들 수 없듯이 부처도 뒤아서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바로 서야 되고 정견에서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이 일어나야 한다.

끝으로 원오 스님(1063~1135)이 문장료에게 보낸 경책의 글로서 우리들의 경책을 삼고져 한다. <원오심오>에 나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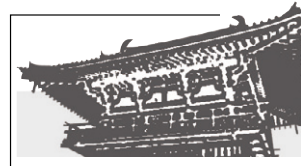
"부처와 조사는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는데 모두 투철하게 깨달아서 마치 두 거울이 서로 비추듯 말이나 현상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격식과 헤아림을 멀리 초월하여 화살과 칼끝이 서로 마주 버티듯 애당초 다른 인연이 없어야 도의

오묘함을 전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입을알이 끊겨 사유를 벗어나고 정식(情識)을 뛰어 넘어 호호랑망하고 자유자재한곳에 도달하였습니다... (중략). 지난날 스승 오조 법연 스님을 뵈고 내 공부를 몽땅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모두 보고 들은 기연의 어구들로서 모두 불법과 심성의 현묘함에 대해였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유구(有句)와 무구(無句)는 등 넝쿨이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려 보았고 다음은 논리를 세워 열심히 설명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해보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 때마다 노스님은 깨내는 족족 간략하게 물리치셨으니 나도 물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재삼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네가 견해로 헤아리는 것이 다하여 일시에

모두 없어져 버리면 자연 깨달으리라'... (중략). 그 뒤 2년쯤 지나 소옥이 하고 자주 부른 것은 원래 단 말이지 아니라 한 구절에서 통 밀바닥이 빠진 듯하여 스승이 전에 보여주셨던 것이 참다운 약 석(약이 되는 돌, 돌을 뜨겁게 하여 배알이를 치료함)이었음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고조사(古祖師)스님들의 자비가 이와 같았다. 거듭 말하지만 간화선은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간화선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말과 글로 부득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중언부언 허물을 쌓는 일이다. 섣을 지고 불구멍이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부처님대로부터 근래까지 간화선의 흐름을 대강 짚어 보았다. 결국 법이란 중도연기를 달리 표현할 뿐 그 근본 뜻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본분사이에 각자 본인이 해결해야 할 당사자의 몫일뿐이다. 노력하고 노력할 일이다. 정리=조동성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민중포교의 대명사 교키(行基) 스님

822년 쓰인 것으로 알려지는 일본 최초의 불교 설화집인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에는 카니란지(蟹滿寺)라는 절의 유래가 실려 있다.

옛날에 7세 때부터 <법화경>을 독송하며 늘 관음보살을 염하던 자비심 깊은 소녀가 있었다. 어느 날 동네의 소치는 아이가 게 8마리를 잡아 먹으려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소녀는 자신의 옷과 바꾸어 게들을 살려줬다. 훗날 산에서 커다란 뱀이 개구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네게 시집갈 테니 개구리를 놓아줘"라고 말해 개구리를 살려주었다. 3월 후, 큰 뱀이 소녀에게 시집을 것을 요구하러 왔다. 소녀는 교키 보살(行基菩薩, 668~749)에게 이 고민을 호소했다. 그러자 보살은 "불·법·승 삼보를 깊이 믿어라"고 답했다. 뱀과 약속한 날, 소녀는 집밖을 나가서 뱀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뱀이 지붕 위에서 구멍을 뚫고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뱀은 8마리의 게에게 물려 8조각으로 찢어져 있었다. 소녀가 예전에 살려준



전설 키타츠 나라역 입구에 세워진 교키 보살상.

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후세야(布施屋)를 만들어 구제했다. 국가의 권력 앞에 쓰러져가는 힘 없는 민중을 불법의 정신으로 구제한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가만둘 리 없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키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버리고 집단 결식을 한다는 죄목 아래 교키는 수차례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제지에도 사회사업과 전도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율령제에 바탕한 고대국가체제가 갖춰지자 강력한 왕권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불법의 보호자를 자처한 쇼무(聖武)왕은 60여 곳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분사(國分寺)와 국분니사(國分尼寺)를 건립했다. 수도에는 총국분사로서 토타다이(東大寺)를 건립하고자 했다. 이 때 토타다이 대불 조영을 위해 교키가 등용됐다. 교키의 활약으로 비로자나 대불이 완성됐다. 교키는 이 공적으로 745년 일본 불교 최고의 지위인 대승정에 최초로 임명됐고, 그의 제자들은 출가자로 인정받았다. 교키는 50여 대사찰과 1400여 곳의 중소사원을 건립했고 제자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중으로부터 살아있는 보살의 칭호를 받았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중포교의 선두주자... 불교 토착화 일등공신

게들이 은혜를 갚은 것이다.

불교교리의 핵심인 인과(인)의 진리가 미물의 보은 행을 통해 잘 드러난 이 이야기는 교키 보살에 의한 민중포교의 일단을 전하고 있다. 교키는 일본에 유학과 한문을 전한 백제 왕인 박사의 후손이다. 설화에 의하면 그는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쓰고 나와 부모가 이를 꺼려 개오동나무에 걸쳐놓았다고 한다. 15세에 일본 법상종 초조인 도쇼(道昭)를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했다. 도쇼는 중국에 건너가 현장의 가르침을 받고 왔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그의 유허를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의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진호(鎮護)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때문에 사적으로 승려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민간교화, 산림수행, 걸식행위 등을 할 경우 국법으로 다스렸다. 소위 승니령(僧尼令)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 승려의 자율적인 규제는 물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감하게 자비행을 바탕으로 민중전도에 나선 이가 교키였다. 교키는 토목기술을 배워 각지에 저수지와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들었고, 도로나 다리를 놓아 백성들의 삶에 이익을 베풀었다. 각지에 피부병 환자를 위한 온천을 건설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장안을 본떠 건설 중이던 수도인 헤이요(平城京, 현재의 나라)의 부역에 동원된 각지의 백성들이 귀향길에 길거리

교키의 교화행에는 불교의 토착화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일화들로 가득 차 있다. 그 한 예가 감득불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일본의 국보급 불상은 불사(佛師), 즉 불상 조각에 뛰어난 장인들의 의해 만들어진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지방 유서 깊은 사찰에는 교키 전설을 간직한 이름 없는 불상들이 산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특징들이 일목불, 즉 나무 하나에 새겨진 불상이자 국보급의 균형미와는 다르게 불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얼굴이 여럿인 불상, 뒤를 돌아보는 불상, 한쪽 팔이나 한 쪽 눈이 없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불상 등 그 다양성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당시 민중들이 불보살을 꿈이나 계시 등 여러 형태로 친견한 내용을 영목, 즉 신령한 나무에 새긴 것으로 이러한 불상을 감득불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는 교키가 직접 조각한 것도 있지만 다수는 제자들이 조각하거나 가탁한 것이다. 불교가 민중들에게 파급되면서 토착신들에게 의지하던 신앙이 불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도 순수하고 소박한 민중의 애환을 담은 신앙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키를 민초의 희비애환과 함께 하는 친근한 대승행의 보살로 떠받드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 원영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0+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명석(카페트)로 cool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오직~ 현물실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잔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연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차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장용)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동,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엔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물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